

2024년 1월 7일(주일) 제1664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고 이종윤 목사님 1주기 추모 글 모집 및 천안공원묘원 방문

고 이종윤 목사님 1주기를 맞아 성도 여러분
분의 추모글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전 성도이
며 시, 편지글, 수필 등 형식은 자유입니다. 성
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 전 성도

기간: 2024년 1월 10일(수)까지

분량: A4 1/2, 글자 크기 10pt

접수: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또한 1월 18일(목)은 고 이종윤 목사님 묘
소를 방문합니다. 천안공원묘원 방문을 원하
시는 분은 각 교구 간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
고, 간사들은 1월 10일(수)까지 취합하여 사무
국장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발은 교회에
서 9시에 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
hanmail.net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성명 / ② 주민번호 / ③ 전화번호
- ④ 주소 / ⑤ 가족합산 여부

연말정산 자료는 수신 이메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 (담당: 송미라 권사)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함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
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
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감정헌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신년감사예배

성찬식 :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결·예산 공동의회 : 찬양예배 후

2024년 신년 첫 주일인 오늘 우리 교회는 신
년을 감사하며 신년 첫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올해 예배 임례찬송은 9장 1절로, 송영은 6장
으로 변경됩니다.

찬양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다루는 공동의

회가 열립니다. 등록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
은 모두 참여 바랍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출발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여 은
혜 충만한 2024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농어촌100교회 · Vision2030 한가정한선교사 후원자 모집

2024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30
운동, 한가정한선교사 운동 후원자를 모집합니
다. 후원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오늘 주보 삼지
인 후원 접수 용지를 작성하여 로비에 비치된

접수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
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
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 겨울학기

1. 학기운영: 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2. 기간: 1.13일(토)-3.17(주일), 10주
3. 운영비: 각 학기당 90,000원(10시간 기준)

- 클래식기타·색소폰 반은 별도)
4. 문의 및 신청: 남재은 집사
(010-9189-8019)
5. 구급신청서 양식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악기	클래식기타 합주	주일	12:40-	10주	B101	장윤식 집사
	드럼	토	11:00-	10주	601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	14:00-	10회	B101	정인주 단장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송재일 권사
연기	찾아가는 힐링연기	토	11:30-	10주	702	박재현 배우
미술	비단부채에 피는 꽃 (비단채색화)	주일	14:00-(100분)	5주	704	유은경 집사

※클래스 특성에 따라 개강/종료일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토요 통기타/베이스 기타반은 강사 사정으로 24년 휴강

※나의 재능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강사 지원을
환영합니다.

2024 청년부 비전트립팀 여름 의류·의약품 모집

2024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팀에서 필리
핀 빈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여
름 의류와 수건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입지 않는 반팔 티셔츠와 수건(세탁 필수)
2. 의약품: 처방전 필요 없는 감기약, 소염진통제,
마데카솔, 비타민 등
3. 수거 기간: 1월 7일(주)-1월 28일(주) 4주간
4. 수거 장소: 1층 로비 웨민홀과 102호 사이
5. 문의: 권소희 권사·송미정 권사·임미경 권사

마른 땅으로 건너가듯

(여호수아 3:14-17)



손달익 위임목사

우리는 결코 쉽지 않았던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내일이 결정되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한고비 한고비를 넘기면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매일이 한고비 한고비를 넘기는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을 떠나기만 하면 살 것 같았지만 곧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고, 홍해를 건너니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는 광야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산에 도착했는데 이제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력한 지도자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여호수아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너갔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1. 새벽을 깨우라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명령하고, 책임져야 하는 여호수아는 늘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새벽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 속의 많은 지도자들이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는 자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자기 삶에 성실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벽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일보다 기도를 앞세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너는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2.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수 3:5).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선행 조건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큰 죄를 지었으니 돌아가 그 죄를 먼저 해결하고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훔쳐 감춘 것이 민족의 죄가 된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야곱이 딸 디나로 인해 온 가정이 큰 환난을 당하여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엘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베엘로 올라가기 전, 가족들에게 먼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먼저 성결토록 한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의롭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죄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방치하거나 당연시하면 안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죄로 인정하고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필요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되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섰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 자기의 명예,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 보다 앞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앞길이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사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먼저 해야 할 일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 건너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앞서지 마십시오.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명예와 이익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이 한 해 우리 모두 큰 고비를 넘기십시오. 큰 시련에 승리하십시오. 태산 같은 산을 넘으십시오. 이를 위해 새벽을 깨우고, 스스로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 새로운 시작! 새로운 비전!

(2024 섬김위원 발표 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한 해 되길...



최형열 장로
(당회 서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서울교회의 주제성구입니다. 생각컨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내가 믿으면 됩니다.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올해는 교회가 무엇을 갱신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힘을 쏟아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먼저 '기쁨'과 '거룩'을 회복하고 싶

습니다. 세상 기쁨이 아닌 구원의 기쁨 속에, 거룩한 봉사를 하여 봉사자, 섬기는 자의 신앙의 회복을 이루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 영역 확대하는 전도활동이 아닌, 구원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전도가 꽃피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어떤 이권을 가지고

연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이를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는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오직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거룩성을 상실하지 않는 봉사와, 진리로 전도하며, 사랑으로 연합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다.
신실한 주의 종이 청빙되고 믿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또 다시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강인 장로
(기획위원장)

올 한 해 서울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에도 핑계함이 없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저마다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지난날의 분쟁과 코로나를 핑계하며 교회의 빈 자리를 당연시 여기겠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올 한 해 서울교회는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
기획위원회는 올 한 해 서울교회의 훌륭한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며 각 위원회 간 긴밀한 협력을 하여 하나가 되는 서울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님

들께서도 개인의 의견보다는 교회가 연합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일꾼을 총원하기 위하여 5월에 항존직 선거가 있을 예정이며 4대 목사 청빙을 위하여 성도님들께서는 서울교회 믿음의 동역자로서 뜨거운 기도로 이 중차대한 일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해작전과 사명자대회는 한 해 동안 서울교회 성도님들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9월의 바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더하여 올해는 교구찬양대회를 개최하며 교구간 열심과 선한 경쟁을 통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은

적극 참여하시어 함께 나아가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울교회 올해 표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1.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2.다시 교회로(Rebuild)
3.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를 지침으로 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교회 안의 부서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너와 내가 함께 Coram Deo, 오직 하나님 면전에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두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 때 서울교회는 또 한 번 독수리 날개 치듯 하늘을 비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김혜언 장로
(예배위원장)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23)
"온라인 예배는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
예수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예배를 주제로 한 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고민과 해석은 오래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일까?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의 영

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사모하여 한 주간 몸부림치며 갈망하고,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간절히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가 가득히 드러지는 그런 교회가 서울교회 되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배위원회는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예배 드리기 적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지고선(支高善)의 예배 (4면으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안내, 헌금, 성례뿐 아니라 더욱 폭넓은 모습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섬기겠습니다. 준비된 마음을 충실히 드리는 예배,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감동이 솟구치는 예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예배, 서로의 감동을 나눔으로 섬김

이 배가 되는 예배. 그리하여 서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예배의 선순환으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나의 삶으로 자리잡아 나가는 24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마다 예배의 감동을 누리시고, 받은 말씀과 은혜로 한 주를 넉넉히 승리함으로 살아가며, 나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격으로 성화되는 예배자가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가 더욱 기다려지는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민호 장로
(찬양위원장)

2024년도에는 가브리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베들레헴, 은빛, 시온, 호산나, 갈렘찬양대와 그레이스핸드벨콰이어, 3부 예배찬양을 담당하는 예나힘찬양단으로 구성된 10개의 찬양대가 조화를 이루며,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찬양하기에 힘쓰려 합니다.

이를 위해 매월 세 번째 주일마다 찬양예배 후 202호에서 진행되는 찬양위원회 월례회를 통하여, 손달의 위임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말씀과 각 찬양대의 준비되는 찬양이 조화를 이루어 모든 예배 참여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더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찬양대, 찬양대와 찬양대, 찬양대와 성도간 소통하며, 각각 별도의 찬양대가 아닌 온전히 하나된 서울교회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찬양대가 갈렘찬양대와 협력하여, 주일과 수요일예배뿐만 아니라 장례 가운데 특별한 위도가 필요한 가정의 천국환송예배 시간에 온교회가 함께 위로하며 천국의 소망 나누기에 힘쓰려 하니, 갈렘찬양대원 참여에 모든 찬양대원과 성도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특별히 각각의 찬양대원으로 불러주시고 모든 예배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곡을 연습하고 찬양하는 시간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기때문에 더욱 감사할 뿐이며, 이에 협력하시는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과 핸드벨 단원, 팀파니스트, 피아니스트, 오르가니스트, 지휘자, 찬양대장과 부대장 모두와 함께 할 수 있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의 발전과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2024년이 되길



오윤걸 장로
(교육위원장)

2023년 세상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많은 분야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회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종교계, 특히 기독교는 코로나 때보다도 예배 참석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청소년 기독교인 비율이 7% 밖에 안된다는 사실 속에서 교회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은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서울교회는 "천국시민 양성"이라는 사명 아래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회학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성경공부, 성경통독, 성경암송 활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참된 예배자"로 양성하는 기초를 튼튼히 하였으며 열린 프로그램 확대와 3부 청장년 예배 신설

등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의 장소, 예배의 처소로 변모를 시도하였습니다. 연합수련회를 통해 교회학교 학생 모두가 모여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되어 예배하며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즐거움의 시간을 가졌으며 달란트 잔치와 친구초청 잔치로 교회 출석과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기쁨을 알고 맛보게 하는 동기부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교회는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시간이 되면 7층과 8층에서 아이들의 웃음 소리와 뛰노는 모습이 떠나지 않는 교회로, 출석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교회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열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비전으로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지도 교역자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있기에 서울교회는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2024년에는 2023년 교회학교 운영 시스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예배, 부서 운영, 소그룹 활성화, 특별활동 및 절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모금활동을 하며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단기선교와 같이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부서 활동과 부서 행사들을 격려하고 적극 지원하여 성장의 원동력에 조력하고 부흥의 밑거름이 되어 주는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다음 세대의 발전과 부흥, 그리고 조화를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차영도 장로
(새가족위원장)

새가족위원회는 새가족부와 세례교육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67명의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하여 서울교회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더 많은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교사 모두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하여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겸손과 온유, 사랑의 맘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도에도 최선을 다하여 "서울교회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교, 세례, 개종 교육도 내실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 되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므로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교회가 달라지고 성도들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광태 장로
(전도위원장)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내린 지상명령 ‘전도’에 대한 기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선포하다’는 뜻이며, 전도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기에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당신을 심판하기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당신의 죄를 담당케 하였고,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고 이 예수님을 삼 일 만에 부활시키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이므로 당신의 부활을 예비하셨다. 당신은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과, 성자 되심을 믿으라! 은혜의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실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영혼구원의 갈급함을 못 느끼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란 참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타락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지탄받는 작금의 상황에서 교회의 신뢰도 추락은 단연 전도를 막는 장애물로 직결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달라져야 하며 그 속에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전도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지역과 사회에 옳은 길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교인들은 비신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만 갇힐 것입니다. 그리고 비신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느냐보다 ‘어떤 삶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독단적이고 형식적이며 미성숙한 우리들을 볼 경우 비신자들은 신앙 자체에 의심과 회의를 품고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도할 때 상식이 통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초월적 역사들을 인정하게끔 하는 겸손하고도 진정성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삶 자체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전도일 것입니다.

선교에 큰 변화가 있을 2024년



유충기 장로
(선교위원장)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가정한선교사 후원과 각 선교지의 선교사를 위한 기도팀장과 팀원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교인들의 성원 속에 서울교회의 선교사님들께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을 때마다 참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었음을 감사 드립니다.

특별히 올 해는 2016년 이후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청년부 비전트립팀이 필리핀 볼라칸주 바띠아시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고 후반기에는 선교 대학을 개강하여 내년도 서울교회 단기 선교를 위한 교육을 계획하게 됨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통하여 서울교회의 더 큰 선교비전을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서울교회의 선교정책이 2025년부터 총회로 완전 이관되는 정책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선교사님들이 은퇴 후 퇴직금 등 재정적인 도움과 연금 등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의논 되었고 총회에서는 은퇴 후 연금수령과 선교사 파송 중의 복지, 의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서울교회는 앞으로 선교사 파송하지 않기로 하여 부득이 지원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에는 서울교회 파송 선교사 중 총회파송을 원하는 선교사는 총회파송 교육을 권고하였고, 선교 지원금은 격월마다 10%씩 점차적으로 감액지원을 하고 2024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중지와 함께 부득이 말라위, 일본,

케냐,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는 선교비 지원을 중단하고, 의정부 열방교회는 국내전도부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신 서울교회 선교사님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선교사업은 멈출 수가 없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가정한선교사 후원을 부탁드리며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께 큰 힘이 되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세계복음화에 앞서 가는 길임을 믿고 기도합니다.

섬김의 자세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백도환 장로
(구제위원장)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되돌아보면 수없이 어려웠던 시간들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도우시는 손길로 극복 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로로 임직하자마자 맞은 2024년을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개인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기에 바빴으나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와 어르신과 이웃을 외면한 채 아직도 받을 것만을 계수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지면 증오와 다툼 또한 심화됩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신앙인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깨닫습니다. 섬김과 사랑을 나타냄으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교회의 성도로서 해야 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받은 빛진 자이기에 우리 모두는 교회 안팎의 어려운 상황과 뜻밖의 재난으로 힘겨워하는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헤아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비록 교회의 재정이 아직 어려운 형편이지만 서울교회의 목표인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하여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기에 힘쓰며 맑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이 서울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서은석 장로
(재정위원장)

지난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인생의 자랑이라 여기는 것들도 배설물이라 여겼던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처럼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것들을 고백하며 새해를 맞아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올해는 서울교회가 부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해입니다. 무엇보다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서울교회 목표를 중단

없이 추진하고 실현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서울교회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구별하여 드린 예물은 서울교회의 재정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사용됩니다. 특별히 지난해에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구별하여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재정 운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정위원회에 서는 성도들께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임을 명심하여 투명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드리는 예물도 중요하지만, 성도들께서 교회의 여러 시설과 물품을 사용할 때 아껴 쓰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동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도에는 서울교회 온 성도들이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서울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몸되신 교회를 아끼고 청결하게



김승록 장로
(관리위원장,
건축 및 건축물관리
위원장)

관리위원회와 건축 및 건축물관리위원회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2024년부터는 하나의 위원회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먼저, 관리위원회 소속인 주차관리부와 식당관리부는 모든 성도님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중요한 공간을 관리하는 부서이며, 예전부는 교회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외부에서 오시는 외빈들을 섬기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건축 및 건축물관리위원회 소속의 건축관리부는 아름다운 서울교회의 시설

물들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2000년 12월 25일 입당예배를 드리고, 2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많은 부분이 변경되어 새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외벽과 종탑, 그리고 조명과 음향설비, 사인보드 등 많은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안타까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 개선해 나가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몸되신 서울교회를 모두가 아끼고 청결하게 사용하여, 다음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물려주시는데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회에 알려주시면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서울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구들이 모여 서울교회를 이룹니다



노제현 장로
(교구위원장)

24년에 교구위원장으로 섬길 것을 명 받았습시다.

항상 그렇듯 우리 주님은 일을 맡기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함께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습시다.

올해에도 신실한 교구장, 부교구장, 교구 간사, 그리고 다락방장들을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올해 이 분들과 함께 성도님들을 정성껏 섬겨 화목하고 즐거운 서울교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구는 서울교회의 세포와 같습니다. 작은 세포들이 모여 인체를 이루듯 각각의 교구가 모여 서울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모든 교구가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성도여러분, 교구위원회 섬김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손달익 위임목사님 내외
당회원·은퇴장로·협동 목사·
전도사 일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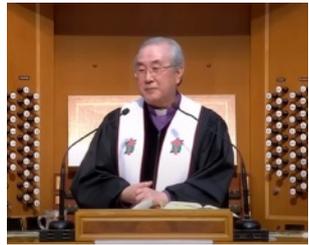
2023년 마지막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다가 총회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에 의거하여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들의 은퇴식과 장한 어머니 시상식, 성경통독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 ▲ 위 왼쪽:장로 은퇴식, 위 오른쪽:안수집사·시무권사 은퇴식
- ◀◀ 2023성경통독자 시상 ◀장한 어머니상 시상(자녀 개근)

(사진: 정승균 안수집사·유은경 집사)



▲ 2023년을 보내며 열린 '송년음악회' ▼ 2024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송구영신예배



성경통독자 추가 9교구 이영자 은퇴권사(2독)

개인전



- 7교구 오행미 성도 개인전
'빛과 소리를 그리다'
2024. 1. 10(수)-16(화) 인사아트프라자 4층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4-1
T) 02-736-6347

식사 제공



- 3교구 박용상 안수집사·최영경 권사 가정
(최영경 권사 모친상을 은혜 중에 마치고)

떡 제공



- 4교구 이성재 성도·박신정 성도
아들 이호진 아기 첫돌을 감사드리며
(4교구 이우진 안수집사·김일순 권사 손자)

* 순례자(부장:이민호 장로)는 2024년부터 교회식사나 떡, 과일을 제공해 주시는
성도들의 사진이나 가족사진을 함께 게재합니다.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1월8일	월	창 1-3
1월9일	화	창 4-7
1월10일	수	창 8-10
1월11일	목	창 11-14
1월12일	금	창 15-18
1월13일	토	창 19-20
1월14일	주일	창 21-23

매체인 성경통독			
창8	마8	스1	행8
창9,10	마9	스2	행9
창11	마10	스3	행10
창12	마11	느1	행11
창13	마12	느2	행12
창14	마13	느3	행13
창15	마14	느4	행14

2024년부터 기존의 성경일독 진도표와 구약과 신약, 시편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해서
1년에 구약 1독, 신약과 시편 2독을 하는 매체인방식 성경읽기표를 함께 게재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코람데오(Coram Deo) 신앙으로 경건하고 온유하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위로가 되는 2024년의 삶이 되게 하소서.
2.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3. 새해에 복음 위에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전쟁과 분열, 죽음과 고통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언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